원광대-파키스탄 FRIENDS MFG社 산학협력 MOU

글로벌 현장실습 · 인턴십 · 취업연계 위한 상호교류 추진

원광대학교와 파키스탄 FRIENDS MFG사가 양국 산업체의 산학 교류 촉진과 함께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을 통한 우수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을 목적으로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난 12일 원광대 학생지원관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송문규 원광대 LINC사업단장과 케셜 하메드 슐레리 대표를 비롯해 이번 협약을 이끈 파키스탄 ARSA사 무하마드 암자드 자베즈 대표, 원파키스탄 이강재 대표 및 이선숙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원광대와 FRIENDS MFG의 산학교류는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원파키스탄 이강재 대표 제안으로 지난 1월 원도연 기업종합지원센터장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추진됐으며, 원광대와 FRIENDS MFG사의 MOU 체결에 앞서 원파키스탄, ARSA, WORTH SPORTS 등 3개 업체 간 MOU가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원광대 학생들의 글로벌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인턴십 및 취업연계를 위한 상호교류를 펼쳐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독일과 파키스탄 시알코트(Sialkot)시에 회사를 둔 FRIENDS MFG사는 독일서 핸드폰 부속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파키스탄 시알코트시에 있는 기업에서는 스포츠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ARSA는 네일아트 기구제작 특화회사로 의료기기 및 네일아트 분야에서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맡고 있으며, 원파키스탄은 시알코트시에서 한국어학당 운영과 함께 네일아트 관련 기구 및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문규 LINC 사업단장은 "양 기관의 MOU 체결이 한국과 파키스탄의 우호증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발돋움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케셜 하메드 슐레리 대표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양국의 상호교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부천시 전북도민회, 무주군에 조손가정 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무주군은 14일 부천시 전북도민회 강옥동 회장 외 회원들이 군청을 방문해 관내 조손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방문은 전북도민회 측이 다음달 1일 무주군이 주관하는 도시소비자 초청 행사 참가를 앞두고 먼저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뤄진 것으로, 강 회장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렵게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로서, 관광객으로서, 또 출향민으로서 깨끗한 무주에서 정성으로 길러진 반딧불 농·특산물에 대한 믿음, 아름다운 무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고향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다"며 "무주와의 인연이 앞으로도 서로 돕고 헤아려 주는 관계 속에서 더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5월 1일 무주장날에는 부천시 전북도민회 회원 120명이 무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 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35명 장학생 선발

전주완산소방서는 14일 임실119 안전센터에서 의용소방대원 자녀 3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장학증서 수여식은 해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대원 자녀들의 학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날 수여식을 통해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은 고등학생 8명, 대학생 27명이며 고등학생은 127만원, 대학생은 142만을 받게 된다.

완산소방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소방대원 자녀들 중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안진수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수 동화분교, 동화호반 십리 벚꽃길 걷기 행사 성료

동화호반 십리 벚꽃길 걷기 행사가 장수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장 주관으로 12일 장수 관내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매년 4월이면 동화지역에 가득 피는 벚꽃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2005년 제1회 동화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는 '벚꽃길 걷기'로 내용을 바꿔 경쟁보다는 친구, 선생님과 자연을 느끼는 행사로 자리잡으며 올해만 해도 참가자가 100명 더 늘어나는 등 해마다 성황을 이루고 있다.

동화댐 수문 입구는 이 행사로 1년 중 단 하루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한시적으로 거닐 수 있는 특별한 산책로가 된다. 참가자들은 동화분교로부터 시작하여 동화댐 산책로, 동화댐 수문까지 이어지는 총 6km 남짓의 걷기 코스를 걸으며 호수의 이름을 살린 '동화(洞花)속 동화(童話) 만들기'를 주제로 친구, 선생님과 사진찍기 미션을 수행하고 벚꽃잎이 새겨진 기념 손수건을 받았다.

홍해숙 교장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일찍 꽃망울을 터뜨려 져버린 벚꽃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아직 벚꽃이 만발해 있는 이곳 동화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행사"라며 "봄의 향긋함에서 교육활동 1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 완산구, 장애인 전동 보장구 안전수칙 홍보

완산구는 14일 장애인과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전동보장구 사용 안내문 발송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에 나섰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도로 통행해야 하는 보행자로 명확히 구분돼 있다.

하지만 전동보장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도 이용 불편을 이유로 도로 위를 달리는 등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완산구는 관내 전동보장구 사용자 약 400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김영재 기자

고창농촌개발대학, 춘계 체육대회 개최

고창군이 지역 농업발전을 이끄는 농업리더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고창농촌개발대학이 춘계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는 14일 전북대학교 고창 캠퍼스에서 농촌개발대학 6개과 교육생과 김상호 고창군 부군수, 이상호 군의장, 이상호·장명식 도의원과 내빈 등 2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피구게임과 물대야 릴레이, 판 뒤집기, 혼성계주 등 교육생의 단합을 도모하는 명랑운동회가 펼쳐졌다.

또한 장기자랑에서는 교육생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며 서로 유대관계를 증진하고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체육대회를 통해 교육생들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 효자지구대, 신속 출동으로 7000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경찰이 신속한 출동으로 7000만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는 14일 오전 11시께 시내 한 은행에서 '70대 노인이 6개 통장을 해약해 7000만원을 인출한다'는 다급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만난 노인은 "친척에게 주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경찰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신종 보이스피싱 절도형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려는 일당에 속고 있다"며 끈질기게 노인을 설득해 7000만원을 다시 은행에 안전하게 입금해 막대한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효자지구대장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는 반드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전북경찰청-송광사 '좋은세상 만들기' 업무협약

전북경찰청은 14일 완주 송광사와 의무경찰 대원들의 건강한 수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전북경찰은 송광사에서 템플스테이와 의무경찰 대원들을 위한 힐링 음악 페스티벌 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광사 주지 법진스님은 이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 우리 모두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순창경찰서, 대형마트 영수증 활용 교통사고 예방 홍보

순창경찰서가 교통법규준수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대형마트 영수증(신용카드 전표)을 활용해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협조를 받아 "안전띠·안전모착용,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순창경찰서"라는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 문구를 게재해 주민 상대로 자연스럽게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에 대형마트 영수증에 게재되는 교통사고 예방 홍보문구는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유형별, 시기별(계절별)로 해당시기 및 특색에 맞게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교통사고예방 정보를 게재해 법질서를 존중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여 사고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구현하여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주민공감대형성 및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데 착안했다.

최규운 서장은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특색 있는 실질적인 홍보활동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정착과 교통사고로부터 주민이 안전한 순창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구인규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갖고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범 처분 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국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경미 형사범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2건 모두 초범에 피해액도 각각 9000원, 2만원에 그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점을 살펴 2건 모두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장하연 완산경찰서장은 "그동안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입건하며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내실 있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과 심사 대상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